

제3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원 공개모집

청년의 농식품 분야 정책 참여로 미래 농업의 길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제3기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10월 20일부터~11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며, 약 2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년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에게

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정책 자문이나 회의 참석 등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농식품 분야 관심도, 활동 경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특

히, 농업뿐 아니라 농촌 융복합 산업, 식품,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며, 1년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발 절차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DB 누리집과 농식품부 누리집,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농식품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함께 만드는 농정이 곧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식품부 전경



▲경농제품

올해 고생한 나무에 전하는 조비 '감사비료'

적기 시비로 과수 건강과 생육 강화 서둘러야

수확이 끝난 과수는 수세를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에 따라 내년 성패가 갈린다. 한 해 동안 열매를 틔우느라 지친 나무는 적절한 양의 감사비료로 기력을 회복하고, 월동나기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는 다음 해에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눈 형성을 돕고, 초봄 양분 흡수를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미리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쥬조비의 치요다550과 더존 과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감사비료는 한 해 동안 열매를 맺느라 수고한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을철 비료다. 수확 후 떨어진 나무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다음 해 풍년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절한 양의 감사비료는 수세 회복과 월동을 위한 양분 공급, 고품질 열매를 위한 꽃눈 증가 등에 도움을 준다. 다만 시기를 놓친 감사비료는 오히려 나무의 휴면을 늦춰 동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

기 시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치요다550과 더존 과수로 내년 고품질 다슬기를 미리 준비할 때다.

치요다550은 감사비료 중에서 효과가 단연 뛰어난 제품이다. 분사식으로 제조돼 일반 복합비료 대비 입자 내 공간이 약 2배에 달한다. 덕분에 양분 흡수와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며 잎, 줄기, 뿌리 등의 영양기관과 꽃·종자·과실 등의 생식기관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흡수가 지연되어 늦가을 생장이 늦어질 가능성을 줄여 냉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더존과수는 복합비료지만 감사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13-6-8+2(고토)+0.2(붕소)의 성분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요다 성분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 토양 내 침투력과 흡착성이 좋아 시비할 경우 작물이 양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비료 효과가 신속하게 발현된다. 감사

비료로 사용할 경우 빠른 흡수력을 보여주며 연화칼륨 비료에 비해 염류 집적의 염향이 적어 이른 봄 작물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원활히 한다. 또한 황산칼리(유황)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의 품질 향상과 저장성 증진, 신선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비 이후 남은 비료를 이듬해 밑거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한국 농협,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서울 선언문 선포식 개최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20일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개최한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ICAO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

'ICAO 서울 선언문'은 ▲식량 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 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

합 간 연대 강화 총 7개의 핵심 의제로,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임을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었다.

강호동 회장은 "「ICAO 서울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협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고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하여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10월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 및 농촌 소재 지역농협 등을 방문하며 한국 농협의 발전 모델을 경험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국내 유일 종자산업 박람회 성황리 종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 10월 22~24일 전북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 유일의 종자 산업 전문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45,000㎡ 규모 박

람회장은 산업관, 비즈니스관, 품종 전시포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97개 기업·기관과 다기업·사카타 등 외국계 기업도 참가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22개국 88명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되어 대규모 B2B 상담회를 진행했으며, 농업회사법인 ㈜에프앤

피 등과 현장 수출 협약식도 열렸다. 농업인 단체 36곳, 1,331명이 참관하며, 품종 전시포와 산업관 홍보부스를 통해 기업과 농업인 간 비즈니스 연계가 이루어졌다. 전시포(4ha)에는 51작물 480품종이 전시되며, 토종종자 4품종과 유전자원 51품종을 포함했다.

올해는 전시포 전망대와 부스가 새로 설치되어 관람객 이해를 돕고, 신품종 고구마 수확 체

험, 퀴즈쇼, 씨앗 팔찌·화분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AI 육종 활용, 극한한경 농업 기술 등 최신 연구를 소개하며, 작년 박람회는 19개국 바이어 상담을 통해 81억 원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해외 바이어와 참가기업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치유농업 통해 신체적·정서적 회복탄력성 UP

농촌진흥청은 22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에서 서울 지역 소상공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첫 시범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과 삶에서 전환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치유농업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며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 개개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헤쳐갈 힘을 북돋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참여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모집했다.

참여 소상공인들은 껌꽃이(삼목) 동남 식물 심기, 꽃바구니 만들기 등 원예 치유 활동을 체험했다. 식물이 새 뿌리를 내리는 껌꽃이(삼목) 과정을 보며 회복과 재생의 의미를 느끼고, 직

접 만든 꽃바구니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며 성취감을 만끽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는 심리적·사회적 회복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치유농업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최소영 과장은 "치유농업은 신체적, 정서적·심리적인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활동이다"라며 "일상에 지친 누구나 치유농업을 통해 제도악하는 힘을 얻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확산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대상치유농업 시범운영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재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농협사료의 발자취

어둠이 내려앉은 재해의 현장, 그곳에도 농협사료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폭우 속에서,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협사료의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축산농가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농협사료 임직원 올림



어제도, 오늘도, 재해의 현장에는 늘 **농협사료의 손길**이 함께합니다!